### R&D·고용 창출·수평 조직문화 내세운 中企·스타트업

# 제주선 "성공사례 공유"… 서울선 "기술혁신 경연"

**R&D로 성공한 中企는 서울로**
**성공 스타트업은 제주서 한자리**
**이노비즈·벤처기업 기술력 뽐내**

제 19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이 8월30~9월1일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노비즈협회

혁신과 도전의 아이콘인 이노비즈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서울과 제주에 각각 모여 기술력을 뽐냈다.

기업들이 끊임없는 연구개발(R&D) 노력으로 완성한 차별화된 기술로 제품을 생산, 국내외 시장을 넓히고 고용을 창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들도 전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만들고 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기발랄한 문화로 기업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선 기술혁신 中企 '한자리'**

1969년부터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에 뛰어든 후 내년이면 창사 50년이 되는 인팩. 안테나, 혼, 액추에이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인팩은 현재 컨트롤 케이블 부문에선 국내시장 점유율이 45%로 1위이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15%로 5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연구개발(R&D) 자금으로 쓸 정도로 기술력 제고에 '올인'하고 있는 인팩은 자동차용 EPB(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관련 신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는 등 지금까지 총 2079종의 신제품·신소재·신공법을 개발하며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인팩은 63개 협력사에게 품질혁신을 지원해 불량률을 57%나 줄였고 매출은 평균14% 늘리는 등 동반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인팩 최오길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주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행사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은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주식회사 호룡도 연간 매출액의 4% 이상을 R&D에 쏟아붓는 등 기술혁신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회사다. 호룡은 박장현 대표가 취임한 2010년 당시 328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1057억원을 기록, 7년새 무려 3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27명의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38건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고가사다리차, 고소작업차, 크레인, 전동크레인 등을 개발·제조해 국내외 시장을 공략한 결과다.

실제 호룡은 2013년 당시 '오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데 이어 최근 2년간 해외에서만 678만 달러의 매출을 거뒀다. 호룡의 이같은 노력은 혁신대전에서 동탑산업훈장으로 돌아왔다.

이번 혁신대전에선 이외에 최근 3년간 연평균 67명, 누적으론 총 2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화장품용기 제조기업 펌텍코리아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 저온수 폐열회수 흡수 냉동기, 배기가스 흡수 냉온수기를 개발해 냉동산업 발전에 기여한 월드에너지, 금속가공기를 국산화해 국내 기계산업 발전에 힘쓴 케이엠씨, 수입에 의존하던 단노즐 진공펌프보다 효율을 높인 친환경 다단노즐 진공펌프를 개발해 제조산업분야 발전에 공헌한 한국뉴매틱 등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행사 기간 중 주관기관 중 하나인 이노비즈협회는 한국창업학회와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창업기를 지나 성장·성숙기에 위치한 스케일업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이고 있어 독일·미국 등 주요 각국은 스케일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의 대표 주자인 우리 이노비즈기업이 스타트업 성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선 스타트업 '성공사례' 공유**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18회 벤처썸머포럼' 둘째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베이글랩스, 유라이크코리아, 웰트, 시지온, 오픈놀, 럭스로보, 새천년카 등 스타트업들이 차례로 무대에 섰다. 스타트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이들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다. 청중석에는 수 십년간 사업을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선배 벤처와 이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했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는 "산업간 융복합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지만 스타트업들에 대한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면서 "스타트업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애로를 공유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베이글랩스는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스마트 줄자'로 승부수를 걸고 있다.

스마트 줄자는 사람의 키, 가슴, 허리, 발 등 신체 곳곳뿐만 아니라 DIY(Do it your self) 붐을 타고 각종 가구 제조 등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웰트는 '스마트 벨트'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웰트를 창업한 강성지 대표는 의사 출신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다음엔 의사를 하다 삼성전자에서도 일했다. 그러다 웰트를 차렸다. 웰트의 스마트 벨트는 단순한 벨트가 아니라 헬스케어용으로 쓰인다. 강 대표의 이력이 이를 잘 말해준다. 스마트벨트가 복부 관련 데이터를 모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주요 질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새천년카 김선호 대표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카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스타트업에 도전했다. 차량 정비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동차를 자산으로 보고 차량 구입부터 소모품 교체주기, 정비,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차의 모든 이력을 모두 관리한 '개인 맞춤형 차량관리 서비스'가 새천년카의 핵심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량관리는 새천년카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스타트업 합작

## 주유소 거점 택배 '홈픽' 전국 서비스

SK이노베이션은 신개념 C2C 택배서비스 '홈픽(Homepick)'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전국에 보유한 주유소 약 450개를 거점으로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C2C 택배는 개인 간 택배,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가 대표적인 서비스다.

홈픽은 지난 4월 론칭해 5개월간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올 연말까지 택배 집화 거점 주유소를 600여개까지 확대해 고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홈픽은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물류 스타트업 '줌마(Zoomma)'와 공동으로 런칭한 C2C 택배 서비스다. 어디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1시간 이내 방문해 택배를 수거한다. 향후 관련 업계와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C2C 뿐만 아니라 C2B 택배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단위 서비스를 개시한 홈픽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 문의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 "영세 상호금융, 예금 편의취급 과다"

일부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에서 예금 편의취급이 과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8개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이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예금 편의취급 과다 등 예금 관련이 19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대출(9건, 17.3%)과 예치금(8건, 15.4%) 순으로 취약했다.

금감원은 조합별 내부통제 취약 또는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과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해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다.

예금은 무통장·무인감 등 예금 편의취급거래를 최소화하고, 미정리 예금편의취급거래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정리토록 했다. 현금시재 및 수표용지는 재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점검결과 보고를 강화하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 스타트업, 오라 양재로… 플래그원 오픈

**서브원, 공유오피스 본격 진출**
**테헤란밸리·테크노밸리 등과 연결**

서브원 플래그원의 11층 메인라운지 전경. 입주사 규모와 목적에 따라 층별로 테마와 인테리어 컨셉을 차별화했다.

서브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유오피스 '플래그원'이 3일 서울 양재동 서브원 강남빌딩에서 본격 오픈한다.

2일 서브원에 따르면 플래그원은 3개층, 600석 규모로 프라이빗룸, 테마별 회의실, 30인실 세미나룸, 250석규모 대형 강당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3호선 양재역 및 신분당선과 연결돼 있어 강남 테헤란밸리를 비롯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 바로 연결돼 스타트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플래그원은 지난 2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기존 공유오피스 문제점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업계 최대 크기의 개인사무공간 특화설계, 프리미엄 힐링 서비스, 국내 유명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입주기업의 밀착 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개념의 한국형 공유오피스로 꾸며진다.

무엇보다, 사무환경의 기본인 데스크의 크기를 업계 최대로 제작, 모니터를 2개 이상 비치할 만큼 여유롭다. 또한 인체공학적 의자를 비롯해 모니터 빛에 의한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조명 조도와 자연 채광의 유입을 최적화해 업무 피로도를 개선시켰다.

공용공간인 회의실과 세미나실은 흡음 마감재를 사용해 소음을 차단시키고 커튼을 설치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여유로운 개방감이 돋보이는 라운지에선 청정 공기관리 시스템과 최적화된 온·습도를 제공하고, 뮤직 디렉터가 선곡한 업무와 휴식에 최적화된 음악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섬세하게 고민했다.

1인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대기업까지 규모와 목적에 따라 층별 테마와 인테리어 콘셉트를 달리했다. 아이디어 공유나 협업 기회가 많은 1~8인의 스타트업을 위한 캐쥬얼한 인테리어 스타일의 '스타트업존'부터 집중도와 안정감이 중요한 200인실 규모의 '대형 오피스존'까지 업체 규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회의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3개의 테마 회의공간을 비롯해 30인실의 세미나실과 제품 런칭 등에 활용되는 250인실의 대강당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충분한 리프레시가 가능한 힐링공간과 프로그램도 특화했다.

서브원 강남빌딩 11~13층에 들어서 주변이 탁 트이고 사면이 통유리로 구성돼 있어 청계산과 양재시민의 숲을 비롯해 롯데월드타워까지도 한눈에 조망이 가능하다.

내부 인테리어는 천연나무 소재를 이용한 책상과 의자, 가구 등으로 꾸며 입주사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몰입, 창의력 증진을 극대화는 물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빈티지 턴테이블과 LP판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는 '하이브'를 비롯해 명상과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케이브', 수유 등 임산부를 위한 '네스트' 등을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